

안보·백신·경제... 더 굳건해진 한미동맹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사거리 제한 '미사일 지침' 종료 합의
한반도 비핵화·평화 정착 의견 일치
판문점 선언 기초한 대화·외교 공감
美 "55만 한국군 장병에 백신 제공"

한국과 미국은 판문점 선언에 기초한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한미 미사일 지침의 완전한 종료에도 합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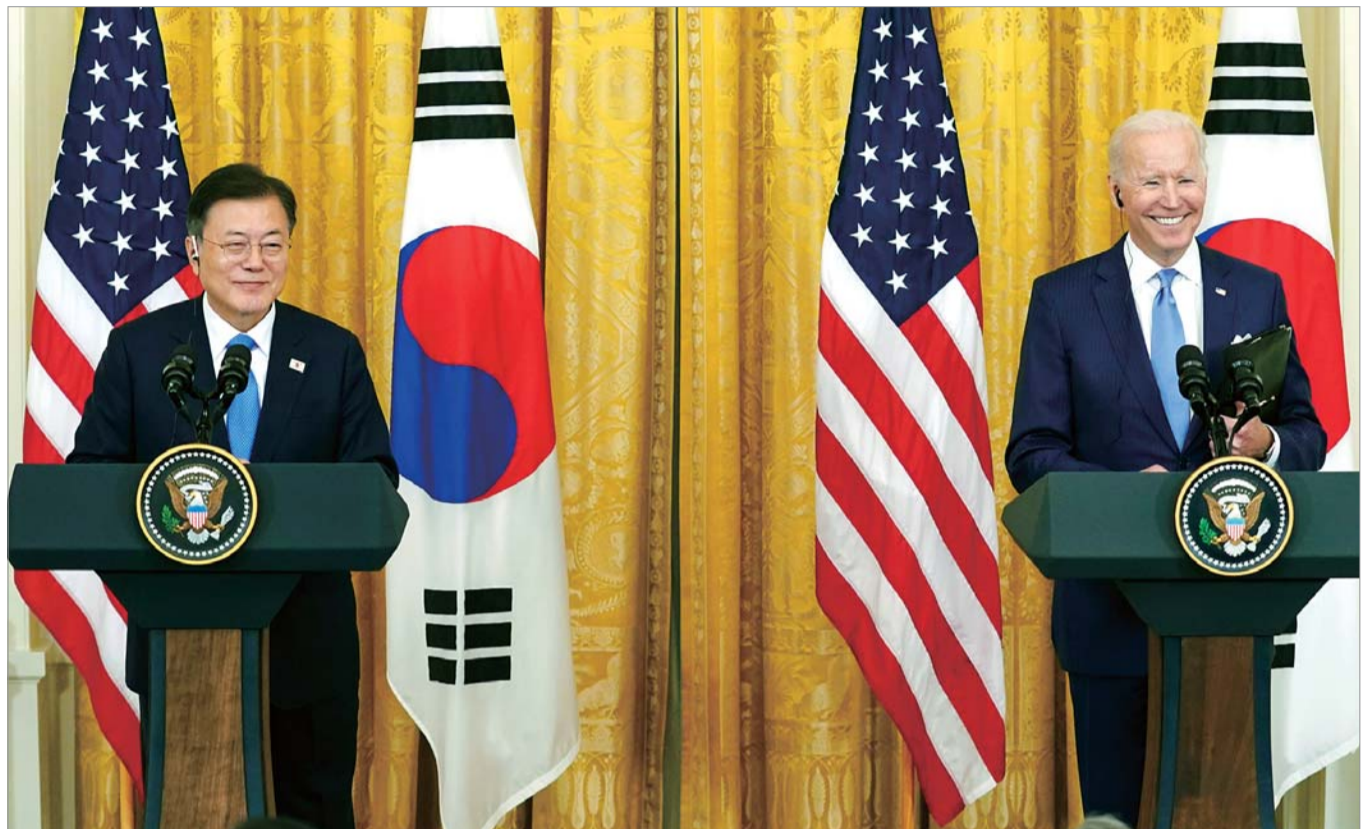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관련기사 2·3면

특히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북 접근법의 완전한 일치'를 위해 조율해 나간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1979년 미사일 자율 규제를 최초로 선언한 이래 40여 년간 유지되어 온 미사일 지침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거리 800km 제한이 완전히 풀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리가 2001년 가입한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2002년 가입한 HCOC 탄도미사일 기술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 규약 등을 충실하게 이행해 온 데 대한 국제 비확산 분야에서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미사일 지침 종료는 우리 정부가 "변화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 속에서 지침은 소멸을 다하고 적실성을 상실했다"며 먼저 제의하고, 미국 측이 이에 공감해 폐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전 종료로 '미사일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됨으로써 사거리 구애받지 않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군사 정찰 위성을 수시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우주로켓 기술도 더욱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정상은 또한 한미 양국간 국제 백신 허브 파트너십을 구축해 전염병 공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각국의 강점을 발휘해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 간의 위탁 생산 계약이, 노바백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보건복지부 간 추가적인 연구 개발 협력에 대한 MOU가 22일 체결됐다.

아울러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공급망 협력 강화,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연대와 협력 강화, 한국의 신(新)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의 연계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 차원

에서 약속한 것"이라며 "55만 명의 한국군 장병에게 백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군에 백신 공급을 약속했다고 확인했다. 이는 사실상 한국군 전체에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백신을 주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조지아주(州) 애틀랜타에서 전용기편으로 귀국길에 오르며 3박 5일간 방미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주형 기자

위 이미지는 브레이브걸스 '유나'가 역조공을 위해 직접 그린 시안입니다.
역조공 프로젝트 <SUPPORT U>영상은 유니버스 SNS에서 확인하세요!

브레이브걸스가 국군 장병·예비군·민방위분들에게
역.조.공 합니다!

브레이브걸스 플래닛 OPEN!

오리지널 콘텐츠, FNS, 프라이빗 메시지로
브레이브걸스와 더 가까워져요!

지금 UNIVERSE로 단결!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하기